

# 무령왕릉 vs 황남대총

권 오 영(한신대학교)

## 1. 누가 묻혀 있는가?

### 1) 피장자문제

- \* 무령왕릉: 웅진백제를 부흥시킨 무령왕  
무령왕의 출생과 즉위에 얽힌 이야기, 일본의 各羅島(加唐島), 개로와 문주,  
그리고 곤지의 이야기
- \* 황남대총(98호분): 마립간기 신라 왕, 특히 눌지왕(?)  
김씨 세습왕권의 확립, 내물과 실성, 그리고 눌지, 박제상 이야기(복호와 미사흔)

### 2) 주변에 있는 관련된 무덤

- \* 송산리 6호분: 또 하나의 전실묘, 누가 묻혀 있는가? 유물은 어디로 사라졌는가?
- \* 천마총(155호분): 천마를 그린 말다래(障泥), 말인가 기린인가?  
신라 금관의 착용자는? -- 황남대총 북분, 천마총, 금관총, 금령총, 서봉총  
신라 금관의 용도는? -- 데드마스크설

## 2. 발굴조사의 역사

### 1) 무령왕릉

- \* 카루베 지온(輕部慈恩)  
도굴의 역사, 문화재 약탈행위
- \* 세기의 발견, 최악의 발굴: 1971년 7월에 벌어진 일
- \* 후지노키고분 발굴의 교훈: 준비와 매뉴얼의 일본, 순발력과 임기응변의 한국

### 2) 황남대총

- \* 천마총을 통한 발굴연습: 거대 토목구조물인 돌무지덧널무덤의 조사방법은?
- \* 계획적인 국가발굴의 정점: 유신체제와 신라정통론

### 3. 두 무덤의 구조

#### 1) 무령왕릉

- \* 전실묘: 중국 남조 무덤의 영향
- \* 아치와 볼트: 건축토목공학의 원리
- \* 풍수에 입각: 중국적 사상의 도입
- \* 거품을 뺀 슬림한 형태: 무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?

#### 2) 황남대총

- \* 돌무지덧널무덤: 기이한 구조의 이 무덤은 어디에서 왔는가?  
시베리아의 쿠르간, 스키타이와 흉노설
- \* 한반도 최대의 왕릉(길이 120m): 남분(왕)과 북분(왕비)의 합장 -- 표주박형
- \* 거대 고분문화의 최고봉: 삼국고분 중 최대

### 4. 두 무덤에 묻힌 유물들

#### 1) 무령왕릉

- \* 무령왕 부부의 장신구: 관식, 귀걸이, 목걸이, 팔찌, 허리띠, 신발 등
- \* 진묘수와 묘지, 매지권: 신선사상
- \* 3년상과 정지산유적

#### 2) 황남대총

- \* 삼국 고분문화 중 최고의 후장: 온갖 재화를 아낌없이 부장
- \* 순장의 실시: 10대 소녀의 순장  
남녀 각 5명을 순장하던 신라 왕실
- \* 풍부한 서역산 유물: 유리용기, 상감 유리구슬

### 5. 두 무덤의 의미

#### 1) 무령왕릉

- \* 국제적인 규격과 기준: 중국적 장묘문화의 완벽한 이해
- \* 정제되고 세련된 장묘문화
- \* 일본 후기 고분문화와 무령왕릉

## 2) 황남대총

- \* 신라만의 특색있는 장묘문화: 고구려, 백제, 가야, 왜와 대비되는 돌무지덧널무덤의 세계
- \* 고분에 투입된 막대한 에너지: 후장에서 박장으로
- \* 급성장하는 신라 국력의 반영: 고구려에 종속된 상황에서 자립의 길로

## 6. 백제문화와 신라문화

### 1) 공통점

- \* 확대된 교역대상: 일본, 중국, 서역  
무령왕릉 금송재 목관, 황남대총 조개  
무령왕릉 도자기와 황남대총 도자기  
무령왕릉 중층유리구슬(금박, 은박구슬)과 황남대총의 유리 용기,  
특히 봉수병(오이노코에)

### 2) 차이점

- \* 왕의 성격: 관료적 왕과 사제왕의 차이  
백제왕은 관료적, 신라왕은 사제적 속성
- \* 사회의 재화를 어디에?: 사원과 고분  
후장을 일찍이 벗어나 박장으로 진입한 백제 - 사원건축과 성곽 축조에 에너지 투입  
신라는 6세기 이후 박장으로 진입